

인터뷰

“실적공사비 폐해 절감...적정공사비 반영하는 제도 절실해”

- 윤리경영·나눔경영으로 시민 신뢰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할 수 있도록 -

이주현 해광건설 대표이사는 지난달 말 광주광역시에 있는 조선대학교의 제20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법인 이사 문제로 학교가 흔들리는 지경에서 동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대학과 법인 간의 관계를 개선할 책임자로 이주현 회장이 선택된 것이다. 그는 1969년 조선대 경제학과를 주경야독으로 졸업하였고, 2009년에는 69세의 나이로 모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열성적인 학구파 건설 경영인이다. IMF 사태가 한창이던 1998년에는 7번이나 도전해 떨어졌던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친화력과 열정, 그리고 끈질김을 갖춘 그는 현재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의 수장이기도 하다. 지난 8월 전임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된 것이다. 그는 취임 당시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친목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윤리경영과 나눔경영을 통해 건설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지역 건설업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 25일까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를 이끌게 되는 이주현 회장을 만나 지역 업체의 경영 애로 사항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이주현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신임 회장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깊이 새겨 봉사하는 자세로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먼저,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셔서 감회와 각오 또한 비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은 지역 건설업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깊이 새겨 봉사하는 자세로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른 지역도 건설경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광주광역시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의 건설경기가 전국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광주는 경제 활동 인구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10.1%(7만 5,000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으로 충남(5.1%), 경남(5.7%), 경북(5.8%)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까지 건설 수주액은 2,333억 원으로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5%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공 공사는 638억원으로 60%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인

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2분의 1, 울산과 대구의 7분의 1, 그리고 인천과 부산에 비해서는 무려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125개 회원사 가운데 1건도 수주를 못한 곳이 전체의 2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회사 운영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 광주광역시장 등 지자체 수뇌부와 잇따라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항들을 강조하고 요청하셨는지요?

저는 회장 취임 후 협회 임원들과 함께 윤장현 시장님과 조영표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을 차례로 면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근 건설 공사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상황을 설명 드리고, 건설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회복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SOC 건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형 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하여 계약 관계 법령과 현장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많은 공구로 분할해 발주하고 49% 이상 지역의 무공동도급을 적용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발주되는 많은 공사에 적절한 공사비가

인터뷰

“실적공사비제도로 인해 건설업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까?
이번 기회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모든 건설단체가 힘을 모아 반드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영되지 않아 일을 하고도 이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고 공사비 삭감 위주의 계약 심사 방식을 지양해줄 것도 건의 드렸습니다.

공공공사 수주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지역 내 건설업체들은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실적공사비제도의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실적공사비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간 실적공사비제도로 인해 건설업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까? 하도급 시공 단가로 공사 원가를 산정하고 또다시 낙찰률을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으로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 그리고 건설 근로자까지 모든 건설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도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실적공사비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실적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로 바꾸고 산정 방식도 계약 단가뿐만 아니라 입찰 단가와 시공 단가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반영될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입니다. 저는 이번 기

회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모든 건설단체가 힘을 모아 반드시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30년 이상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셨는데 지역 업체의 기업 경영에 애로가 되는 규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종합건설업체는 발주자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기업을 경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공공 발주자는 슈퍼 갑으로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삭감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기가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도 간접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기성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 비용 미반영 문제는 건설업계,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사화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전체 건설업체가 마음을 하나로 합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하도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제는 종합건설업체가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으로 역전되었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터널의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듯이 희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습니다. 정당하게 하도급 계약을 하고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부실 공사까지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해야 하지만 원도급자의 불법 행위 못지않게 하도급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기술·특허업자의 시공 관련 횡포나 30억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품목의 관급자재 의무화 사용 문제도 시공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총재나 여러 지역 사회 단체에 활동을 하면서 오래 전부터 봉사를 해 왔으며, 현재 회원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법사랑 광주지역연합회 회장을 맡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장애인과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회원사에서 매월 1만~5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후원금을 기탁 받아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생에는 혈연과 지연, 학연, 사연(事緣), 낙연(樂緣) 등 ‘오연(五緣)’이 있다고들 합니다. 혈연·지연·학연과 연계된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봉사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즐거움, 즉 ‘낙연’을 다양하게 즐기고 싶습니다. 항상 마지막 봉사라는 기회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삶의 철학과 건설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주시고.

저는 평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확신을 갖고 사업이나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나 직원들에게 항상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터널의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듯이 현재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